

자연은 '삶의 안식처' 푸르게 보존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독일에 체류할 당시 한 참사님의 열렬한 구도자적 삶을 지켜보면서였다. 부처님처럼 길 위에서 아나기리까의 집없는 삶을 실천하는 노이아르선생이 바로 그분이다.

그는 영원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현명한 눈빛을 담은 말투속에 감추고 신성하기 그지 없는 북구의 황혼을 걷고 또 걷곤 했다. 노이아르선생과 라인강의 한 지류인 지그강과 굽은이 펼쳐진 평원을 따라 걷노라면 한겨울의 추위도 봄의 녹듯이 녹아내렸다. 차가운 별빛은 붉은 꽃비가 되어 쏟아지는 듯했다. 기로수의 앙상한 나무가지에 걸린 달빛은 무한히 투명한 우주를 머금고 있었다.

저 멀리 농가의 불빛이 아스라히 보이는 지그강 언덕위의 차가운 벤치위에 앉아서 그는 내게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똑박 똑박 전했다.

"수행자들이여, 체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거룩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참사님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아서 땅을 땅으로 여기고, 땅을 땅으로 여기고 나서, 땅을 생각하고, 땅에 있어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즐거워한다. 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말씀은 베알리 경전 중 부아랑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귀절이다. 이 탁월한 부처님 말씀은 땅, 물, 바람, 생명현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전개된다. 그는 아주 낱아빠진 말투로 달빛아래서 실과 바늘로 꿰매며 이 귀절을 독일어로 읊조리고, 이어 아주 유창한 영어와 불어로 반복했다.

부처님의 지구 사랑



프로로그

아직은 서너개의 별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우주는 그 거룩한 말씀에 이끌려서 황홀하기 그지 없었다. 한 곳에 오래 앉아 있다보니 한기가 온몸에 스며들어 우리는 또 지그강을 따라 걸었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30분도 못되어 거미줄처럼 쳐진 고속도로와 엄청난 소음, 매캐한 가스냄새와 만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남에게 내어 주고 빈털터리가 된 구도자. 형형한 눈빛과



전재성

따스한 두 발로만 걸고 또 걸으며 추운 겨울에도 하나의 땅토를 걸치고 나무밑에서 잠을 청하는 이 예언자적인 참사님에게 산업사회의 문명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다.

노이아르선생이 숲속으로 참을 청하러 간 뒤에 나는 곰곰히 생각했다. '세상사람들이 참사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땅 물 불 바람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 물 불 바람 생명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는 곰곰히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차가운 겨울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독일은 원재가 없던지 유사시에는 울창한 숲의 나무만 팔아도 1백년은 지탱한다고 자부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숲속의 나무들은 어느새 반 이상이 모두 공해로 병들게 되었다. 가난한 명상자의 안식처였던 숲이 언제 사막화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녹색운동'의 물결은 독일을 시발로 80년대초에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환경오염은 전세계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최상의 목표로 하는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사님의 터전마저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력

- △ 서울대 졸업
-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3년차 회장 역임
- △ 독일 본대학 인도학·티베트학 박사과정
- △ 역서로 <인도사회와 불교> <불타의 가르침> 등이 있으며 <빠알리어 사전> 편자.
- △ 현 한국불교대 교수, 정선문화원 객원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모든 악행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불교 신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는 현생에서의 착한 일을 강조하는 것에 신행의 초점이 맞춰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인과의 법이러한 연기법등이 모두 선한 행위의 소중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 지은 업들에 대한 과보는 내생의 성불을 가능케 하는 뿌리란 의미에서 '선근(善根)'이란 말도 나온 것이다.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착한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불자로서의 바른 길은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나의 선행들이 모여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참다운 불자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구조나 남의 허물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 착한 일을 해나가는 자세가 먼저 갖춰질 때 부처님의 보고 넓은 가르침도 진정한 향기를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는 착한 일을 강조하는 여러

금주의 주제

선행하기

아름다운 사회의 뿌리

"작은 것부터 매일 실천" 서원 세우야

그러나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선한 뿌리를 갖추기 보다는 악한 업을 짓는 쪽으로만 흐르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악행 불감증'까지 갖게 됐다는 심리학자들의 지적은 흘러 들을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악행 불감증'을 '선행 불감증'으로 변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과 사회에 선행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인간세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는

가지 의식과 습관이 전해지고 있다. 예수재라든가 선강(善綱), 선월(善月) 등이 그것이다. 또 10선계도 정해져 있다. 착한 일을 강조하는 열가지의 계율은 우리의 삶을 부처님의 삶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새해, 참법자로 살아가기를 서원하며 <정보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보자. "이 세대에서 하루동안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극락 세계에서 백년동안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신행수첩

비구니 스님들의 기행

유홍준씨가 폐사지 안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면 는 건다고 했다. (재)대원정사는 최근들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성지순례의 전편일부적인 답사를 지양하고 불교문화의 얼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영남대 유홍준교수가 안내하는 '제3차 대종불교 산천기행'이다. 이번 순례는 관광버스를 타고 유적지를 찾아 행하니 볼러 보고 또 버스를 타고 떠나버리

는 정제된 순례가 아닌 문화재·신앙적 측면의 불교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성지순례를 하게 된다.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 일대의 폐사지인 법천사지, 고달사지, 거둔사지를 답사하게될 이번 순례에는 비구니스님들에게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 겨울, 비구니, 폐사지가 적절히 감성의 고리를 엮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성지순례는 불교계에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행단은 1월26일 압구정 현

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오전8시 출발한다.(02)773-5731

옛가르침·예절 배우요 봉화산 한문서당 열어

은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찾아낸다는 말이다. 날로 혼탁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예절과 자아를 상실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옛 선인들의 가르침이야말로 때로는 번잡해 가는 우리의 윤리를 바로잡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라 할 수 있다.



◇ 고달사 터에 남아있는 해진담비 이수 및 귀부(보물제6호)

고대 민족문화의 숲 헤쳐 보자

부산불교교육원, 매주금요일 삼국유사강의

우리나라에는 많은 역사책이 있다. 그중에서도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일연스님이 혼자서 직접 기록한 국가적 보고이다. <삼국유사>는 특정한 사관이나 대상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사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일컬어 '우리 고대사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한다. 육당 최남선은 "《삼국유사》를 읽고 싶노라 하면 마치 원시 문화의 숲을 헤쳐 가는 듯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삼국유사>는 한국불교문화의 결정체이며 한국불교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귀한 책 <삼국유사>를 살필수 있는 기회가 부산불교교육원(지도법사 성재도)에 의해 마련되었다. 새해들어 매주 금요일 오후7시 교육원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삼국유사 강의가 그것이다. 이번 강좌는 한문학자이자 서예가인 경재 조영조 선생이 직접 강의한다. '한문공부와 불교공부를 함께 하자'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금번 삼국유사강의는 수시로 개강한다. (051)466-4080

봉화산 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은 2월5일부터 25일까지 '봉화산 한문서당'을 마련하고 이렇게 옛 가르침과 바른 예절을 배우기 위한 초·중·고생들의 열렬한 눈동자를 담은 체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봉화산 한문서당'은 3주간 합숙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어 참가자들은 예절교육과 인성개발, 극기훈련은 물론 참선을 통한 자아개발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다.

규칙적이고 엄격한 단체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돌아가는 길엔 1천5백여명의 한자와 그 속의 가르침을 품어 안게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진정 무엇이든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세계로 용비하는 연주곡의 서곡이 들리지 않는가! (0525)42-2991

부처님 체취를 따라서

구룡사 인도 4대 성지 순례

부처님이 머무시고 설법하신 발걸음 따라 순례하며 불자들의 신앙심을 좀더 높이는 구룡사의 기회가 마련되며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법도량으로 알려진 구룡사

(주지 정우)는 오는 2월17일~3월3일까지 인도 성지순례를 통해 불자들에게 새로운 불법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성지순례는 부처님께서 설한 수도하신 히말라야를 시작으로 롬비니동산, 불교 최고의 기도 도량이자 성불지 부다가야, 초전법륜지 녹야원, 열반지 쿠시나गर 등 4대성지를 둘러본다.

구룡의 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열화시중의 미소로써 부처님의 이심전심의 마음법이 살아 숨쉬고 있는 법화경의 설법지 영축산과 죽림정사, 나란 다대학 등을 함께 하게 된다. (02)575-7766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실천 불교사상 강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대학생들에게는 저마다의 위치와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보불교대학(회장 권유정)은 새로운 삶을 찾는 대학생들을 위한 '제12차 실천적 불교사상' 강좌를 마련했다.

1월9일부터 2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반 정도포 교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근본 불교 교리'를 주제로 7차례 걸쳐 강의가 진행되며, 1월 20~22일 겨울 산행(지리산)과 2월 17~19일 수행수

련등의 특강도 준비하고 있다. 1월9일 불교의 원리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불타론'을 시작으로, 연기와 삼법인, 인연과 (因果), 사성제, 오온, 12처 18계, 중도(中道)·6바라밀·8정도의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용두리 정토수련원에서는 발우공양과 함께 불교의 전통 수행법도 체험할 예정이다. (02)737-0853

신심넘치는 불자되고자 스카우트지도자 수련회

각각각의 다양한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 신심 넘치는 불자의 모임이 있다. (02)735-8165

나와 이웃 자연은 하나

생활 속의 불교 13

협찬: 대우자동차 전농판매

좌천이나 승진이나

사람이 나고 죽는 길 윤회라고 하지만 태어나서 늙는 것도 윤회이고, 사계절이 돌아드는 것도 윤회이다.

물방울이 돌고 돌면서 천차만별로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윤회이다. 별들의 생성과 소멸도 윤회이다.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간 데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한 윤회의 고리가 없다면 진리라는 말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죽음과 탄생은 흰 옷을 벗고

새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흰 옷을 벗고 새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데 흰 몸 벗고 새 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구름이 모였다가 바람 불면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못 생명체의 몸 성분이 되었다가 또다시 수증기로 올라 구름이 되듯이 우리 모두는 이 집에서 한 철, 저 집에서 한 철 돌아가며 산다. 그러므로 같이 산다 해서 내 자식, 내 부모요, 따로 산다 해서 내 자식, 내 부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서로 뒤섞여가며 수억겁을 거쳐

왔으니 내 부모 내 부모, 내 자식, 네 자식 가릴 게 없다.

돌고 도는 사이에 때로는 사람이 새가 되는 일도 있고 새가 사람되는 일도 있다. 마음 씩씩이에 따라 미물에서 고등 동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천차만별 증중으로 오르내린다. 승진이나 좌천이라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한철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좌천을 두려워해야 한다. 승진의 길은 불법의 생활 화에 있다.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브로엄·프린스·에스페로
씨에로·르망·티코·디마스·리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차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대우자동차 전농 판매 | 전화: (02) 215-1472 215-1071 | 팩스: (02) 215-1076